

주의 순전한 도구가 되기 위하여

03/12/2023

요즘 큐티 말씀은 계속해서 사무엘상을 보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시작한 사무엘상 21장 말씀에서는 본격적으로 다윗이 도망자 생활을 하며 겪게 되는 고난의 행군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골리앗을 물리치고 국민적 영웅이 되고, 왕의 사위가 되어 꽃길만 걸을 것 같았던 다윗이 흠길보다 못한 죽음의 행군을 십 수 년간 합니다. 하나님은 왜 그에게 이런 길을 걷게 하셨을까요. 이미 사무엘을 통해 다윗에게 기름부음을 하시며 다음 왕으로 선택하셨는데 왜 고통의 길을 가게 하실까요.

맹자(孟子) 고자(告子) 장구(章句) 하(下)편에 이런 글구가 나옵니다. 天將降大任於是人也 ... 이렇게 시작하여 죽 이어지는 내용을 풀어보면 이런 뜻입니다. “하늘이 장차 그 사람에게 큰 사명을 주려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의 마음과 뜻을 흔들어서 고통스럽게 하고, 그 힘줄과 뼈를 굽주리게 하여 궁핍하게 만들어,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을 흔들고 어지럽게 하나니, 그것은 타고난 작고 못난 성품을 인내로써 담금질을 하여, 하늘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만하도록 그 기국과 역량을 키워주기 위함이다.” 다윗을 보며 던졌던 질문에 대한 답을 맹자에서 얻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지만 훈련과 새로됨의 자리에 서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지 못할 뿐더러 받은 놀라운 은혜를 낭비하는 사람에 불과하다고 말입니다.

어떤 분이 제게 알려주었습니다. 요즘 주일 예배당 바로 앞 큰 길가에 주차 하는 차들이 줄었다고 말입니다. 새로오는 분, 불편하신 분들에 대한 배려로 그렇게 하자고 광고하고 나타난 현상이라 여겨 집니다. 이런 현상을 보며 저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뢰아 사람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에 대해 사도행전 17:11에 이렇게 나옵니다.

“베뢰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저는 여전히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주님이 기뻐하시는 꽃을 활짝 피우며 거룩한 열매로 주님께 드리는 하늘의 꿈을 꿈니다. 그것을 위해 이번 사순절이 구호가 아니라 참으로 “**주님과 함께 하는 거룩한 동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로, 다니엘 금식으로, 고난주간 특새로, 또한 삶공부로 계속 담금질 하여 우리 속에 불순물을 제거하고 주님이 온전히 사용하실 순전한 도구가 되는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기대합니다.